

국가예산 확보 '사활'

익산시, 역대 최대 규모·심의 대비 상주반 운영

익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정부예산안 반영 규모가 7886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예산안 7181억원보다 705억원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예산안에는 신산업 미래성장 동력사업 분야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20억원,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 산업화 촉

진사업 52억원,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사업 48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환경분야에서는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사업 76억원,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 263억원, 국립 치유의 숲 조성 사업 39억원 등이 반영됐다. 아울러 고용안전 safety belt 구축사업 60억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서수~평장 개설사업 247억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57억원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오산 신지~영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등이 정부예산안에 담겼다. 시는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대비해 상주반을 운영,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안은 3일 국회로 제출돼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재훈 기자



최정호 전 차관은 1일 익산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의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중앙부처·정치권과 소통하며 능력을 발휘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개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 17건의 부의안건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정부 제2회 추경 대응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원발의 5건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정부 2차 추경에 대응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2회 추경 1조 5211억 5000만 원 보다 1244억 2900만 원(8.2%)이 증액된 1조 6455억 7900만 원(일반회계 1조 4351억 5100만 원과 특별회계 2104억 2800만 원) 규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추석 전 상생 국민지원금 적기 지급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2차 추경 대응 및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지방채 조기상환 등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1일 1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배형원·조경수·김중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부가 식기류 9종 위생용품 5종 등 18종의 일회용품에 대해 사용금지 등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달 서비스 이용 증가로 1회용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재사용용구 구매 의무화 및 수요자 확대는 물론 탈(脫)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플라스틱 어스캐ampaign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소통하며 능력 발휘할 인물 필요"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 익산시장 향한 발걸음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익산 시장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최정호 전 차관은 1일 익산시청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의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중앙부처·정치권과 소통하며 능력을 발휘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이 있는 익산이 돼야 한다"며 "청년들이 미래의 비전을 찾는 도시로, 사회적 배려가 넘치는 도시로, 결제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해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익산의 자산을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으로 경제지도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도시간 연대를 통해 익산은

메가시티로, 메가 경제권의 중심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차관은 "혁신적이고 미래 비전을 가진 젊은 생각이 필요하다"며 "익산을 바꿔 보겠다는 열정과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우리에게 쌓인 큰 문제들을 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의 익산을 벗어던지고 더 큰 익산을 위해서는 더 큰 우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을 만나면 길을 낸다는 봉산개도의 불굴의 의지와 개척정신으로 익산,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는 길에 온 힘을 쏟아 불꽃"고 피력했다. /뉴스

군산시, 외국인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종료

군산시가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긴급행정명령 결과 37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며 코로나19 예방효과를 특출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의 심각성을 사전에 감지해, 지난달 8월 18일부터 8월24일까지 7일 동안 최초 명령을 발령했으며 코로나19 잠복기를 감안해 지난 8월 31일까지 재검사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진단검사 행정명령으로 5,345여

(1차 3,810, 2차 1,53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았다. 현재 37명의 확진자를 발견했으며 격리치료 중에 있다. 시는 확진자 밀집접촉자 180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37명의 확진자 가운데 10명이 격리 중 양성판정을 받았다. 1차 행정명령에는 28명의 확진자를 발견했으며 2차 연장에서는 9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시는 8월 들어 외국인 7,169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총 60명의 외국

인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에 등록된 등록외국인은 지난 3월 말 기준 5,488명 보다 많은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려 했던 행정명령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이번 행정명령으로 외국인 관련 시설에 대한 충분한 자료 확보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처 할 수 있게 됐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직원역량 교육

군산시는 지방보조금 업무담당 직원 60여명(시청 4층 상황실, 농업인회관2회 실시)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2021.07.13.)'에 따른 법령의 주요 내용과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따로 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예산편성절차,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교부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실적보고의 적정성 검증 교부 목적의 용도로 사

용 금지, ▲중요재산 부기등기,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역량강화교육은 지방보조금법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지방보조금의 개념, 주요 업무 흐름 ▲업무 추진단계별 중점 유의사항 등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 등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보조금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질의응답, 효율적 보조금 관리와 개선방안에 대한 상호 소통의 시간을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물론 지방보조금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중에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농민 공익수당 지급 지역경제 활력 기대

군산시가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시는 농가 7,976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48억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있는 농가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농민 공익수당 카드 2장(1장당 30만원씩)으로 지급받게 된다. 시는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7,976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관광환경 조성 방역관리요원 선발

군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관광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방역관리요원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 국민들의 여행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방역관리요원 모집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신분증 및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광진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군산시민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에 실직자 또는 휴직자, 휴·폐업한 관광분야 자영업자, 관광통역 안내사, 기타 관광분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여행사 대표(경영위기기업종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해당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을 우대하며 서류 및 면접시험을 거쳐 16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요원은 안전여행을 위한 관광지 안전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 /군산=고병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